

서울아산병원 체육대회 개최



서울아산병원 체육대회가 10월 28일 남양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

에는 서울아산병원 직원과 가족 4,000명이 참여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어 반갑다. 예전 노래 가사 중에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오늘 가을 하늘이 꼭 그런 날인 것 같다. 제가 직원들과 함께 참여할 종목이 있으면 꼭 불러 주시길 바란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직원과 가족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축구 승부차기, 전략 줄다리기, 볼풀공 채우기 등을 하며 함께 어우러져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다. 열기구 탑승 체험, 레이저 서바이벌, 별 풍선 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참가자를 위한 행운권 추첨을 비롯해 근무로 인해 체육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한 원내 행운권 추첨도 이뤄졌다.

복합 심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젊은 심장 의학자들에게 세계 석학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제8회 COMPLEX PCI 2023(복합 심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가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개최됐다. 올해 COMPLEX PCI는 ‘Make it simple!’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됐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 40개국 약 1,200명의 심장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안정민 교수, 강도윤 교수를 비롯해 세계적 심장 전문의들이 참여해 중증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을 전달했다.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20주년 행사



서울아산병원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인 기능성 단심실로 수술을 받은 환아와 가족들의 모임인 ‘단심회’가 11월 4일 동관 소강당에서 2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선천성심장병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선천성심장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성 단심실을 앓고 있는 환아를 치료하는 폰탄수술을 1993년부터 총 522례 시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진과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아와 가족들의 모임인 ‘새심회’ 회원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